



# DRS 장착한 이동검진차 전국을 누비다!

글\_김진만(경기지부 건강증진팀 대리)

“와! 선생님 너무 좋아졌어요. 촬영하자마자 영상이 나오네. 신기하다”

요즘 검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올해부터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25대의 검진차량에 장착된 검진장비들이 DRS(Digital Radiography System)로 바뀌면서 검진대상 기관의 담당자들이 이런 말을 건네온다.

1895년 처음으로 X-ray가 발견된 이후 지난 110여 년 동안 의학영상분야는 필름이라는 매체에 의존하여 왔으며, 필름을 사용하는 댓가로 현상, 보관, 이송 등에 따르는 각종 경제적, 시간적인 요소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영상분야에서도 필름을 대신하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협회는 1956년 처음으로 흉부엑스선검진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50여 년간 사용하던 필름 촬영방식을 개선하여 영상의 획득과 표시기능이 분리되고 획득된 영상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할 수 있는 DRS로 바꾸게 되었다.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DRS는 X-ray 촬영 후 영상 획득방법에서 필름이 아닌 검출기(Detector)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즉시 영상을 모니터로 표출(Display)하여 실시간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검진 장비이다. 이는 필름 촬영방식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방법으로는 검진결과가 3~4주 정도 소요되었으나 1~2주 정도로 기간이 단축되어 환자의 발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둘째, 필름현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하드디스크 저장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 없이 보관이 가능하고,

셋째, 영상을 대조할 때 증강과 경계 강조 등 여러 가지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미세 음영까지도 잘 볼 수 있도록 가시도가 개선되었으며,

넷째, 정량적인 측정과 분석 등에 따른 진단능력을 향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장점을 가진 DRS를 모든 검진차량에서 운영함에 따라 결핵연구원, 보건소 및 관계 병원과 영상 정보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